

야구의 전통 중국에 전파하다

상인천중 '한·중 청소년 문화·체육교류' 행사 실시

상인천중학교(교장 김홍근)는 1900년에 개교를 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학교로 야구부가 있는 별문 학교이다. 뛰어난 야구 선수들을 끊임없이 배출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에는 전국소년체전 인천 선발전에서 우승을 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지난 7월 15-19일까지 상인천중에서 열린 인천관광공사의 국제문화관광교육협회의 주최로 한·중 청소년 학교 간의 교육교류 및 교류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중 청소년 문화·체육교류' 행사가 실시됐다.

이 행사는 인천시 남동구 야구연합회가 주관하고 인천시 체육회, 인천

시 남동구 체육회, 상인천 중학교, 북경 이공부속 중·고등학교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먼저 15일에는 북경 이공부속 중·고등학교의 교사, 학부모, 학생 등 총 39명이 학교에 도착해 선수단 미팅과 연습 및 훈련 참관 관련 협의시간을 가지며 16-19일에는 LNG야구 전용구장에서 상인천중과 중국 학생들의 훈련과 경기가 실시됐다. 그리고 19일 경기 이후에 폐회식과 선수단 기념촬영을 하는 것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됐다.

이번 '한·중 청소년 문화·체육교류' 행사를 통해 한국과 중국 학생들이



이 천선을 도모하고 서로의 좋은 교육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배우다

상인천여중, 학교스포츠클럽대회서 우수 성적 거둬

상인천여중(교장 김인숙)은 7월 9일 2016년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창작 댄스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으며, 배드민턴 대회에 참가해 3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창작댄스 대회에 참가한 '비어트리스(비트)'는 춤에 대한 순수한 사랑

과 열정을 지닌 학생들로 구성된 상인천여중의 댄스 동아리로 올해로 창단 10주년을 맞이하게 됐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안무를 짜고 주발도 잇은 채 고된 연습으로 땀과 피로가 쌓여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거둔 성과가기에 우승의 의미는 더욱더 값진다고 할 수 있

다.

교과 수업 시간에 라켓과 셔틀콕을 잡고, 무작정 배드민턴이라는 종목에 흥미를 느껴 시작한 배드민턴 선수들은 아침과 점심시간에 구슬땀을 흘리며 꾸준한 연습을 통해 대회 기간 동안 자신의 최고의 기량을 발휘해 3위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창작댄스 대회 최우수 선수로 뽑힌 동아리 부장 홍보 학생(3학년)은 "우승을 한 것도 기쁘지만,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비어트리스가 하나가 되고, 저희 팀이 실력을 인정받게 된 것

기대됩니다, 바른 인재가 만든 더 큰 내일

공인 나무가 자라야
 뜻을 바로 세운 사람이 세상을 리더합니다.
 상지대학교는 바른 인재와 인재를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천하고 성장하는 바른 인재를 양성하는 상지대학교입니다.

바른 인재를 키우는 새로운 접근방법, 상지대학교의 바른 인재가 만들어갈 더 큰 내일이 기대됩니다.



상지대학교 학생홍보대사 한수민(신용경영학과 3학년)



흡연의 좋은 점은 없다

산곡여중, '흡연예방 연극' 공연 관람

산곡여중학교(교장 심순옥)에서는 7월 12일 2학년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흡연예방'을 주제로 한 연극을 강당에서 관람했다.

이번 흡연예방 공연은 중학생 흡연자들이 호기심으로 담배를 접하거나 친구의 권유로 흡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흡연의 폐해에 대해 학생들과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흡연과 간

접흡연을 주는 구체적 피해내용에 대해 공유함으로써 청소년 흡연율 예방하고자 마련했다.

공연 관람은 2학년 전체 300명의 학생이 참여했고 연극인들로 이뤄진 1인간 예술극단이 공연했다.

이번 공연을 통해 흡연의 자·간접 폐해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과 인식을 심어줬다. 또한 평생 금연습관의 중

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었고 학생들이 가정으로 돌아가 흡연 부모의 금연을 지원해서 유독해 흡연율을 낮추는 등 금연 환경 조성 과 금연 분위기 확산의 계기가 될 것이다.

심순옥 교장은 "이번 연극 공연으로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흡연의 폐해와 간접흡연의 해로움을 전달해 건강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 사회 주역으로 성장하길

관교중, 중국 청도시 제3중학교 학생들 방문

관교중학교(교장 박종선)는 작년부터 중국 청도시 노신구에 있는 노신 제3중학교와 한·중 교육·문화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노신3중은 산동성 모범학교, 산동성 예술 교육 시범학교, 청도시 인성 선진 교육 중점학교 등으로 선정된 우수 학교로 학생들은 한·중 교류를 통해 국제 감각과 세계 시민 의식을 기르고, 글로벌 리더십을 함양하고 있다.

관교중학교는 이미 2016년 5월 4일부터 7일까지 학생 29명과 인솔교사 4명이 자매결연학교인 노신3중을 방문해 국제 교류 교육 활동을 펼쳤다. 이에 대한 화답으로 이번에는 노신3중에서 학생 28명과 인솔교사 4명, 한국대학연합회 회장정, 청도 방송국 기자 1명이 7월 9일부터 12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관교중학교를 방문했다.

노신3중 학생들은 방문 기간 동안 관교중학교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양국 학교의 교육 내용을 비교 체험했고, 한국의 전통 음식을 만들면서 한국 문화를 경험했다. 또한,

앞서 관교중학교 학생들의 중국 방문 시 중국 가정에서 홈스테이로 중국의 가족 문화를 체험했듯이 이번에는 중국 학생이 관교중학교 학생의 가정에서 한국 문화를 체험하면서 더 깊은 우정을 쌓고 교감했다.

자신의 집에 처음으로 외국인 친구를 초대해 국제 교류 방문 행사에 참여한 학생회장 3학년 이모 군은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같은 또래라서 통하는 점이 있었다. 중국 친구와 많이 친해져서 친구가 중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서로 연락을 하면서 우정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제 교류를 통해 한국을 처음 방문한 노신3중의 1학년 왕모 군은 관교중학교의 태권도부에서 보여준 태권도 시범을 보고 "우리 중국에도 한국의 태권도와 비슷한 공룡이라는 것이 있는데, 태권도가 더 멋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우리나라의 전통 무예인 태권도에 관심을 보였다.

한편 관교중학교 한문과 박모 교사는 중국에서 유명한 이백의 '정사사'



리는 한시를 주제로 해 중국 학생들을 수업에 참여시켰고, 미술과 김모 교사는 한글 캘리그래피를 통해 중국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왔다.

박종선 교장은 "우리 학교를 방문한 중국 학생 여러분과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중국 학생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다채로운 공연과 수업 참관 및 전통문화 체험 학습을 이끌어주는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홈스테이를 통해 우호 중진도를 도모해준 학생들과 학부모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양국의 우호교가 함께 더 깊은 우정을 쌓아갈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우리 학생들이 국제 교육·문화 교류를 경험하여 세계시민으로서 역할을 생각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더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폭력없는 세상, 우리가 만들어요

선인중,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



선인중학교(교장 신갑식)는 7월 12일 아침 8시부터 40분간 선인중학교 현관 앞에서 교장, 교감 및 교사, 슬링어 포대상담자 20명, 인천남부경찰서 학교담당 경찰관 3명 등 총 55

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활동을 진행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교폭력 예방 피켓을 들고 '폭력없는 우리 세상 우리가 만들어요'라는 구호를

외쳤고, 학교폭력근절 서명 활동에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경찰 캐리커를 한 포스터, 포스터까지 등장해 학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2학년 윤모 학생은 "앞으로 절대 친구를 괴롭히지 않고 친구사랑에 앞장서며 나부터 먼저 실천하겠다.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선인중학교는 앞으로도 학교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다양한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힘을 모은다.

신갑식 교장은 "무엇든 남에게도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활동에 참여해 준 학생들을 격려하며 '학교폭력예방활동이 꾸준하게 실시돼야 하고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부교육지원청, 자유학기제 학부모 행복 공감 연수 실시

인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삼)은 15일, 2016년 2학기 전면 실시 되는 자유학기제에 대비하여, 중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와 함께 하는 자유학기제 행복 공감 연수'

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에는 학부모 181명이 참여하여, '미래 사회의 변화와 교육의 대응', 그리고 '성공적인 자유학기제 운영 사례'에 대한 연수를

받았다.

"미래 사회의 변화와 교육의 대응" 시간에는 변화하는 미래의 모습에 교육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주로 연구하여, 학생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인천학생교육원 박동훈 연구사를 강사로 초빙하였다.